

“닭·오리 가공공장 신규허가 안된다”

안성축산업자, 전염병 주범 이유

(주)하림 제4단지 유치 강력 반발

(주)하림이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4산업단지에 축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하자 축산업자들이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감염이 우려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림 도축·가공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안성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위원장 최태희)’는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경기 포천·연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강화를 거쳐 충북 충주와 충남 청양, 예산까지 우리나라 중부권을 강타해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다행히 안성은 축협, 축산단체가 합심해 방역활동으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후유증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안성은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했고 규모도 수도권의 식량 배후기지라고 할만큼 거의 모든 축종이 전업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안성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안성에 도축장이 건설되면 사육되는 9만5,000두의 소와 돼지 22만5,000두, 닭 300만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하림 도축장을 유치하면 대기업 유치라는 대외적인 실적과 일부 고용창출 효과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안성지역 축산업은 상시적으로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그 위험은 많은 축산 농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발생한 구제역의 전파 경로로 사람과 차량, 가축의 이동과 접촉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며 “도축장은 사람과 차량, 가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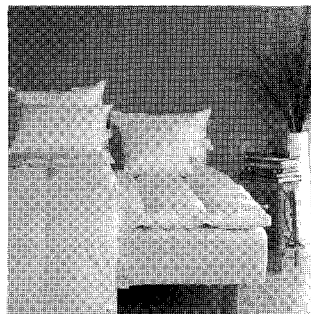
상시 집결하는 장소이며, 질병의 매개체(축분·부산물)가 상존하는 곳”이라며 “일부는 도축장에서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지만 도축장은 그 어떤곳보다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림에서 계획중인 도축시설은 닭과 오리 약 16만수에 돼지, 3,000두, 소 50두 등으로 가축 출하 차량만도 5톤 트럭 하루 100대가 넘는 물량이며, 이런 차량이 날마다 안성 인근으로 들어오면 전지역이 이동경로가 될 것이며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 8월께 안성시 미양면 제4산업단지 2만7,000평에 2,000억원을 투자해 건평 4만6,500평 규모의 하림 도축·가공시설을 건설, 지역 고용인구 2,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안성시에 제출해 시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일보 • 2010.11.2

오리털 이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부 판매업자들이 오리털·거위털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다. 저가의

상품들은 거위나 오리의 다운(가슴털)이 아닌 패터(깃털)이불이고 원단도 다운프루프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저가의 상품들로 소비자들은 거위털 침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게 되거나 그 진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침구 브랜드 '소프라움' (www.maihaus.co.kr)의 이철호 대리는 "다운을 이용한 침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최고급 이불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국내 유명 호텔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는 그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다운 제품 왜 좋은가?

다운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수면 중 약 20회 이상 자세를 바꾼다. 이에 무거운 침구는 인체를 압박해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준다.

다운은 부풀어 있는 털 사이로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 목화솜에 비해 3.8배나 가벼운 반면 따뜻한 온도를 밖으로 빼앗기지 않게 해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해 준다.

인체의 굴곡과 움직임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포근한 잠자리를 유도하고 뛰어난 복원력으로 처음 느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온 변화에 따라 다운불이 팽창하거나 수축하여 통기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 사용해도 무더운 느낌을 주지 않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 다운제품에 대한 잘못된 상식

'다운 제품을 사용하면 알러지가 생기지 않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다운에 대한 알러지는 다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모의 가공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먼지와 불순물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엄격한 가공 과정을 거친 위생적인 다운만을 사용하는 이불은 알러지 발생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다운이 새지 않도록 다운 프루프 원단을 사용할 경우 특수한 가공으로 다른 원단에 비해 원

단 침홀 사이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집먼지 진드기의 투과를 줄여줘 알레르기성 피부에 좋다.

• 다운제품 관리의 어떻게?

거위와 오리는 원래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물세탁이 가능하다.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탁망에 넣어 울 코스에서 중성세제를 사용해 단독 세탁하면 된다.

이때 표백제를 사용하면 안되고 건조시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완벽하게 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관시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방충제를 삽입해 보관한다. 압축포장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얹어 놓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 박소연 • 2010.11.2

이창호 오리협회장, "오리조합 신중히 추진"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이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조합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창호 회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오리협회와 한국가금학회 주최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FTA 대응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품목별 조합을 협회가 구심점이 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며 "아직 협회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신중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리협회를 배제한 오리조합 설립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다.

특히 이 회장은 협회 회원사인 오리협회 계열사와 회원농가 모두에게 오리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과정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리산업 경쟁력 강화 심포지엄에 참석한

오리산업 관계자들은 오리산업의 규모가 1조를 넘어 설 정도로 커진 만큼 이에 맞는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기관의 관심을 주문했다.

농수축산 · 최윤진 기자 · yjchoi@afnews.co.kr · 2010.11.2

오리협회, “무분별한 오리시장 진입, 이대로 가다한 공멸”

한국오리협회가 최근 오리산업에 진출하려는 업체가 늘자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오리업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 1일 ‘무분별한 오리시장진입,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갑자기 커진 시장에 당장 눈앞의 이익이 보이다보니 너나할 것 없이 시장에 진입해 업계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오리협회는 현재 오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업계와 종사자들 대부분은 수십년 전 아무런 기반도 여건도 조성돼 있지 않은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피눈물 나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오리산업을 이끌어온 장본인이라고 피력했다.

그동안 이들이 당장의 이득을 추구하는 손쉬운 방법 대신 생산성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자율수급조절 등을 지켜가며 산업을 현재와 같이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하게 오리산업에 진입하려는 업체로 인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으로 서로 협력해 온 기존 시장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정된 시장 안에서 너무 많은 공급자가 발생, 수급조절에 크나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오리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

스스로 중장기적 사업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2차, 3차 산업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리협회는 신규로 오리산업에 진입하는 업체에 대해 무임승차가 아닌 산업발전과 시장확대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수축산 · 최윤진 기자 · yjchoi@afnews.co.kr · 2010.11.3

‘금년에도 AI 발생 없기를...’

농식품부, AI 발생 시기따라 축산농가 차단방역 강화 당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접어들면서 축산농가의 AI 차단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시·도 가축방역담당 국장 및 관련협회장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AI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010년 AI 상시예찰에 따른 오리검사결과 전남 장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병원성 AI(H7/N6)가 검출과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7/N1)가 발생됨에 따라 AI 유행방지 등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개최됐다.

이상길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2003, 2006, 2008)의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하여 소독(주1회→2회)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한, AI 방역 취약 지역으로 거론되는 재래시장 및 가든형 식당

에 대해서도 소독 및 예찰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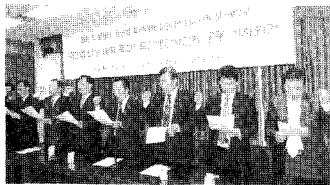
한편,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역을 다녀온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최소 5일간은 농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시예찰 방역업무 이행 실태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홍귀남·2010.11.4

“한·EU FTA 대책 현장소리 외면 ...강경 대응 불사”

7개 생산자 단체 축산업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일 7개 축산 생산자단체 대표자들은 한·EU FTA 결사 반대 기

사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표자들은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양봉협회 배경수 회장,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축단협 이승호 회장(낙농육우협회장),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양육협회 김광선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축산업계가 정부의 한·EU FTA 축산업 대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향후 전국단위 집회 등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를 비롯해 한우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양육협회 등 생산자 7개 단체들은 지난 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업 희생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생산자단체들은 축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EU FTA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FTA 대책에 대해서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는 FTA 대책을 수립하면서 생산자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이미 마련해 놓은 대책을 놓고 생산자단체들에게 단순히 설명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작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단체장들은 “FTA 대책에 무조건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축산업이 제 1의 식량산업으로써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마음 편히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FTA 협상을 벌이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축산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일”라며 “이제 와서 시설행대화, 수출정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국민들의 이익은 등한시하고 막 퍼주기식 협상을 벌인 것은 잘못”이라며 “선진국들 중 자국의 농업을 포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축산생산자단체들은 향후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대책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축산인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FTA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회회견문에서 ▲졸속협상, 축산업 피해 대책 없는 한·EU FTA는 원천 무효 ▲법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축산업 희생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축산업 생산액을 인정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 수립 ▲수입축산물 관세를 목적세화해 국내 축산농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신문 · 이희영 · hyoung@chuksannews.co.kr · 2010.11.3

“고성장 편승 무분별 진출…시장질서 혼란 야기”

오리협, 일부 기업 시장 진입 움직임에

오리업계가 오리산업의 고 성장에 편승해 일부 기업들의 무분별한 오리시장 진출에 대해 시장질서를 무너트릴 수 있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상호)는 최근 일부 닭고기 관련 업체들은 물론 타 업계에서도 줄줄이 오리산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오리협회는 “오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떠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오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오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와 농가들 대부분이 수십년전 국내 오리산업이 발생하던 시기부터 아무런 기반도 여건도 조성돼 있지 않은 황무지에서 지금의 오리산업을 일궈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오리업계는 그동안 당장의 이익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오리고기 대중화를 위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사업 등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오리산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없이 오리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닭고기 업체들은 물론 타 축종에서 오리산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것이 자칫 수십년간 지켜온 오리산업 질서를 송두리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리협회는 “오리산업에 진입하는 것은 그동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으로 서로 협력해 온 기존시장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정된 시장 안에서 너무 많은 공급자가 발생하여 가격은 물론 수급 조절에도 문제가 발생해 자칫하면 이제 성장단계에 들어서는 오리산업을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오리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 스스로 중장기적 사업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한정된 시장 안에서 나눠먹기식 경영이 아닌 2, 3차 산업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 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함은 물론 기존 오리업계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 이희영 · Lhyoung@chuksannews.co.kr · 2010.11.10

시론

오리고기와 오리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10여년 동안의 국내 오리고기 수출실적은 대략 7,100t, 1,602만6,000달러이다.

닭고기의 2만8,224t, 3,235만7,000달러와 비교하면 중량 기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오리고기 수출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2,140t), 홍콩



김정주 교수
간국대 식품자원
환경경제학과

(1,159t), 러시아(1,382t) 등 한정된 국가로만 집중됐고, 2007년부터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오리고기 수출길이 막혔다가 2010년 베트남(2,162t)으로의 수출길이 뚫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으로 지

정됨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0년 9월6일을 기해 한국산 오리와 닭고기의 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힌 점이다. 수출길이 다시 열렸으므로 오리고기 및 가공품의 일본 수출 재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때다.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오리고기 소비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5배, 축산물 생산액 면에서는 3배, 인구 면에서는 2.7배이다. 1인당 GDP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1.9배, 심지어는 달걀 1인당 소비 면에서까지 우리나라의 1.3배를 자랑한다. 그러나 유독 오리고기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못되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 오리고기시장이 불모지로 남아 있다는 말이 된다. 국내산 오리고기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오리가공품 및 오리고기 요리, 레시피 등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재미동포가 250만명에 달해 한국식품의 거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리고기 및 가공품을 선호하는 재미동포 소비자들의 욕구, 나아가 한식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오리업계는 당연히 오리고기 및 가공품의 대미 수출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미국시장으로의 육류 수출은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오리고기를 포함한 모든 육류

는 미국세관에 수입신고가 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통보되는데, 까다로운 미국의 FDA 규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대미 수출을 준비해 온 삼계탕은 아직도 미국 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지금보다는 FDA 규정 통과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오리고기 자급률이 95%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오리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내수시장에 치우친 나머지 국내 오리업계가 세계 오리고기시장 변화에 둔감했던 면도 없지 않다.

국내 오리고기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대비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오리고기 및 가공품의 수출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오리산업을 총체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마침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정책에 발맞출 필요도 있다. 오리고기에 요리와 문화를 접목시켜 일본과 미주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한식세계화 사업에 일조하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명품 오리고기 주생산국으로 세계에 인식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농민신문 • 2010.11.15

일본서 고병원성 사... 국내도 방역 강화

일본에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국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10월 일본 홋카이도의 야생오리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남 장성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바이러스(H5·H7형)가 검출됐다며 AI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검역원은 'AI 예방계획'에 따라 전국 41개 철새도래지와 집중관리지역(22개 시·군, 종오리농장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24시간 보고체계를 가동,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검역원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도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방역을 실천하고,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588-4060, 9060)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도 품목축협 등을 통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일본의 AI 발생상황과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등의 당부사항을 문자로 안내하고, 철새도래지와 축협 건물 등에 방역지도용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농가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민신문·류수연·capa74@nongmin.com·2010.11.12

전북도의회 환복위, AI 매물지역의 사후관리 집중 질의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1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AI 매물지역의 사후관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질

의가 이어졌다.

김성주 위원장(전주8)은 “조사연구 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개선·시정을 요구하고 기획조사 사업과 연구사업의 깊이 있는 노력, 민원에 대한 조사나 검사 후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초 조사를 시행한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숙 의원(비례)은 “AI 매물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해 2년이 경과 했는데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이상은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현장에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관리 현황에 대해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규 의원(정읍1)은 지난해보다 감사지적 사항이 줄어든데 대해 노고를 위로하면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블루셀라병 검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대안을 주문했다.

이현주 의원(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실시 후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결과 매뉴얼에 대해 물으면서 군산시 도로교통 소음 조사 후 기준초과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나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택성 의원(임실)은 배추 파동 당시 검역결과에 대해 문제점 조사만 하지 말고 연구와 개선책까지 마련할 것과 연구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광역상수도 수도관 부식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는지 물으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해 먹는 물 관리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데 업무 반영 계획에 대해 물었다.

문면호 의원(군산1)은 AI발생지역 매물지역 200군데의 상수원에 대한 오염도를 전수조사와 석면처리 문제에 대해 물으면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공동문제로 향후 대책을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시스 전주·유영수·yu0014@newsis.com·2010.11.11

서울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가동 가금류, 우제류 특별관리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AI와 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활동에 나선다.

시는 AI의 주요 전

파요인으로 추정되는 철새들이 한반도에 집중 서식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AI 발생가능성이 높은 닭, 오리, 거위, 꿩 등 가금류와 구제역 가능성이 있는 소, 돼지, 연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이다.

권용하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국내에서는 올해에만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AI의 경우 2008년 이후 국내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관찰되고 있어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담직원을 사육시설에 배치해 주1회 사육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AI·구제역 예방요령'을 집중교육하고 의심동물 발생 여부를 파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주에게 예방요령 홍보 전단지 1,000부를 배포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시 외곽 축산 농가에는 8개팀 소독지원반과 방역차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권 팀장은 "동절기에는 가급적 신규 입식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육할 경우 철새와의 접촉을 피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육시설을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 후 5일간은 축사 출입을 금지하며 축사 출입시에는 옷·신발 등을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사회부·허남영·nyhur@cbs.co.kr·2010.11.11

전통을 파는 베이징 덕...중국 오는 외국인 상들 단골 메뉴로

차이나비즈 '취안취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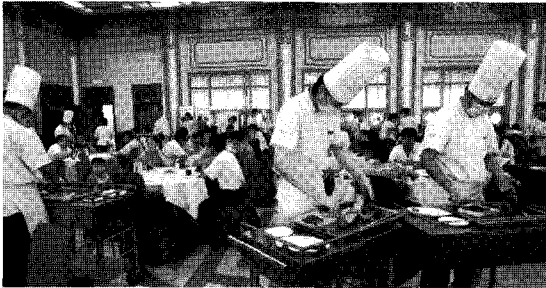


안병국 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취안취더(全聚德)를 아십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을 찾는 외국 지도자나 VIP 기업인들의 동선(動線)에 단골로 넣는 식당입니다. '베이징 덕', 즉 북경오리 전문점이지요. 식당이라고 해서 VIP들의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곳 정

도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14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오리구이 체인점업체 취안취더는 북경 오리를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시킨 일등공신입니다.

중국 정부도 취안취더를 라오쯔하오(老字號·중국 전통을 가진 브랜드 가운데 정부가 보존·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곳)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취안취더의 오리구이로 많은 외교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교류를 돕는 오리구이인 셈이지요. 단순한 전통 식당이었던 취안취더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확보하며 2007년에 선전증시에 상장하고 2009년엔 매출 12억 위안을 기록했을 정도로 거대 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중국판 맥도날드를 꿈꾸는 취안취더의 승승장구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요리전문점인 취안취더. 요리사들이 손님들 앞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취안취더는 1864년 청나라 동치황제 시절 양취안런(楊全仁)이 더취취안(德聚全)이라는 과일 가게를 인수해 차린 오리 요리집이 시초입니다. 양취안런은 운수 대통할 수 있다는 풍수쟁이의 조언에 따라 원래의 상호명을 거꾸로 한 취안취더로 이름 짓게 됩니다. 양취안런의 이름 가운데에도 온전하다는 뜻의 '취안(全)'자가 들어 있고, '취더(聚德)는 덕행이 한곳에 모인다는 뜻이니 장사에 덕행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본래 닭과 오리 장사를 하던 양취안런이 오리구이와 고기구이를 팔기 시작하면서 취안취더가 탄생했습니다.

문화혁명 등을 거치며 국영기업으로 전환한 취안취더는 1993년 이전만 해도 점포가 베이징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계획경제 체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이들 점포를 나눠 갖는 바람에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3년 5월22일 취안취더그룹주식회사가 정식 설립되면서 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4년에는 유통업체인 신연사그룹 및 여행업체인 서우더여행그룹과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워 중국 최대 종합 여행업체를 거느리게 됐고, 2005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전통 문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전통 유명 음식 브랜드도 인수했습니다. 청나라 궁중 요리 전문점으로 유명한 방선반장, 80년 역사의 산둥 지역 해산물 요리 전문점인 풍택원반점, 50년 역사의 사천반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로 중국의 음식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로서 명성을 굳히고 있습니다.

과거 일개 식당이었던 취안취더는 이제 그룹으로 변모했습니다. 베이징에만 10개 점포를 뒀고 중국 전역에 80여개의 직영점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소비하는 오리만 해도 500만마리가 넘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 베이징 취안취더'라는 회사 이름을 '중국 취안취더'로 고침으로써 베이징을 넘어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취안취더는 중국을 찾는 국가 지도자 등 VIP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외국 VIP들을 반드시 이곳에 들르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과거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생전에 27번이나 취안취더에서 외국인을 대접했고, 2004년엔 중국을 극비리에 비공식 방문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안취더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이 TV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본점 2층에 올라가 보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자는 물론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이곳을 찾았다가 찍은 기념사진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2008년 올림픽 기간에도 각국의 정부 요인들이 28차례나 취안취더를 방문해 오리구이를 맛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잠비크 대통령, 룩셈부르크 총리, 미국 재무장관 등도 있었습니

다. 심지어 8월12일 하루에만 13명의 정상급 귀빈을 접대, 한 층 룬에 두 명의 대통령을 동시에 모신 적도 있었습니다.

취안취더는 특히 신뢰경영으로 유명합니다. 2003년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가 발생했을 때 하루 손님이 3~5명밖에 안 되는데도 문을 계속 여는 등 146년 동안 하루도 주방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하루 100만위안이던 수입이 2만~3만위안으로 급감했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자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유리벽으로 요리 과정을 공개해 '중국음식=불량식품'이라는 편견도 떨쳐버렸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취안취더의 브랜드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했습니다. 1994년 국가자산평가기구의 평가에서 취안취더 브랜드의 무형자산 가치가 2억6,946만위안이었는데, 2008년 베이징TV의 보도에서는 8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안취더는 중국 최초로 A증시에 상장한 전통음식 그룹이기도 합니다. 1996년과 2001년에도 IPO(기업공개)를 신청했으나 자산 규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던 취안취더는 중국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선전A시장에 2007년 11월20일 입성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견잡을 수 없이 치솟는 바람에 상장 1분 만에 10분간 매매정지를 당한 일은 지금도 증권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선전거래소에서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과도하게 등락할 경우 10분 동안 매매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취안취더의 이날 주가는 271%나 뛰어올랐고, 한 달 동안 8차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중국 요식업계에 IPO 붐도 일으켰습니다. 본토 상장 성공을 계기로 홍콩 증시와 미국 나스닥 상장도 검토 중입니다.

취안취더는 이제 중국판 맥도날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처럼 표준화를 이뤄 체인점을 늘리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취안취더의 확장에 최대 걸림돌은 더 많은 요리를 더 짧은 시간에 일정한 맛으로 공급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 표준화입니다. 최근 오리를 굽는 화로(爐)와 구울 때 쓰는 목재, 설정 온도 등을 표준화해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ISO 인증도 따냈습니다. 또한 전통의 맛이 담긴 메뉴도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에 라이선스 진출 방식에서 합작 형태 진출로 해외진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선스 방식으로 진출한 홍콩과 일본 호주에서 품질 관리가 안 돼 취안취더의 진정한 맛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자본주의 기업들보다 더욱 매섭게 질주하는 중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취안취더 사례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제 · 2010.11.11

英 체리벨리사 질병 발생...종오리 수입 비상 수입 1위업체...내년 공급·원종오리사업 차질

영국의 체리벨리사의 한 부화장에서 질병이 발생해 종오리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종오리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0년 제 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종오리 수입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영국 체리벨리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로 올해는 물론 내년도 종오리 수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12월 중 이 회사로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GPS의 수입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원종오 리사업도 비상이다.

당장 올해 남은 수입 물량으로 14건 6만6천990수(암컷기준)의 수입이 중단됐다.

또한 종오리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살모넬라,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등과 같은 질병이 수출 전 최소 12개월간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 지도 수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또 다른 종오리 수출업체인 프랑스 그리므드사와 협의해 내년도 종오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리협회는 F1오리 근절을 위해 협회 내 'F1오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F1오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축산신문 · 이희영 · hyoung@chuksannews.co.kr · 2010.11.15

【한국의 새 명품 먹을거리】

국내최초 친환경 인증받은 충남 아산 '유황 오리'



류도현 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유황을 섞은 사료를 먹여 키운 오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황 사료를 먹고 큰 오리는 질병에 강한 내성을 가지면서도 육질이 탄력 있고

오리 특유의 잡냄새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3일 충남 아산시 신창면 류도현 씨(47)의 오리농장. 기자가 탄 차량이 농장 입구에 들어서자 양옆에서 안

개처럼 소독액이 차량을 향해 자동으로 분사됐다. “외부 방문객에 의한 병원균 유입을 차단하는 소독설비입니다. 위생을 위해 도보 방문객도 격리 공간에서 소독을 받고 방명록에 출입 기록을 남기게 하지요.” 농장주 류 씨의 설명이다.

류 씨가 오리 사육에 뛰어든 것은 1995년. 질병에 강하고 맛도 좋은 오리를 기를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오리에 먹일 사료에 유황을 섞는 실험을 시작했다. “돼지 같은 경우 잡내를 없애고 육질을 좋게 하려고 유황을 섞은 사료를 먹입니다. 오리가 가금류 중에서 해독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터라 같은 방법을 오리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죠.”

• 반복된 실험으로 황금비율 찾다

하지만 오리가 먹어도 탈이 나지 않으면서도 육질은 좋아지는 유황 섭취량을 알아내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유황이 조금만 많다면 오리는 죽어나갔고 그때마다 주변에선 “사람 몸에 해로운 황을 오리에 먹이는 위험한 사람”이라며 류 씨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류 씨의 아내 송란경 씨(46)는 “오리를 키우고 처음 3년간은 정말 힘들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하지만 무수한 실험 끝에 류 씨는 마침내 최적의 유황 배합 비율을 찾아냈다.

사료 전체 중량에서 유황의 비율을 0.03% 선으로 조절하자 항생제를 주지 않아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육질이 쫄깃하고 오리 특유의 잡내가 안 나는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 기술은 부화에서 출하까지 45일 정도 걸리는 오리의 생육 단계에 따라 유황의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것인데 이는 ‘머느리도 모르는’ 류 씨만의 노하우다. 그의 집념은 올해 6월 유황에 당귀, 숙지황, 작약, 오가

피, 황기 등 식물성 원료를 섞어 만든 사료로 특허를 받는 것으로 결실을 봤다. 그가 실험을 의뢰한 대학 연구팀도 유향을 먹인 오리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로 그의 손을 들어 줬다.

류 씨의 '유향 예찬' 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뚝밥에 유향과 석회를 섞어 축사 바닥에 뿌려주면 유향과 석회의 살균작용 덕분에 구더기 같은 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오리 배설물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줄어듭니다." 류 씨의 설명을 듣고 축사에 들어가 보니 과연 실내 온도를 높이며 온풍기를 틀어 났음에도 오리 배설물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 국내 최초 무항생제 오리농장 인증

유향을 먹고 자라 질병에 대한 내성이 높은 류 씨 농장의 오리는 항생제가 필요 없다. 덕분에 2007년 이 농장은 사육 전 과정에 항생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오리농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받았다.

같은 해 역시 오리농장으로서 국내 최초로 사육에서 가공,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도 받았다.

차별화된 품질에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이라는 날개를 달자 판로가 열렸다. 2008년 CJ오쇼핑의 '1촌 1명 품' 상품으로 홈쇼핑 방송에 소개된 이래 방송 첫해 3억 원, 지난해 25억 원 등 올해까지 3년간 5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반 오리 가공제품보다 비싼 가격(무항생제 훈제오리 340g들이 6팩과 텡 160g짜리 1팩에 5만3900원)에도 1회 방송에 평균 매출이 1억5,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오리 하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큰 성공을 거둔 류 씨지만 그는 "아직 멀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농장 곳곳에 수십 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거래처

사람들이 컴퓨터만 켜면 농장의 오리 사육 과정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미국 하와이산 해양 심층수를 구입해 배탈이 난 오리에게 약대신 먹이는 등 믿을 수 있는 오리를 기르기 위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농장 인근에 오리 가공 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류 씨는 오리 가공 과정에도 새로운 도전을 계획 중이다. "지금까지 오리 제품은 친환경으로 기른 뒤에도 소비자에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려고 가공 과정에서 식용 발색제를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목표는 발색제를 쓰지 않아도 소비자가 즐겨 찾는 모양새를 갖춘 오리 가공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 우정렬 기자 • passion@donga.com • 2010.11.15

종오리 사육마릿수 80만마리 돌파

웰빙음식 인식 소비 뒷받침... 수입 물량도 늘어

종오리 사육마릿수가 사상 최초로 80만마리를 돌파하는 등 오리 사육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가 매월 발표하는 종오리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국내 종오리(페킨)종 사육마릿수는 81만7,369마리로 지난달보다 2.2%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22%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올 1월에만 해도 57만마리에 불과했던 종오리 마릿수는 3월 61만마리로 늘었고, 6월 76만마리에 이어 9월 81만마리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폐 오리의 도태가 지연되면서 산란 종오리 마릿수도 50만마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마리보다 19%가량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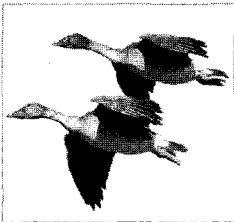
종오리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종오리는 2008년 17만9,000마리, 지난해 27만1,000마리에 이어 올해 9월까지 36만4,000마리가 수입됐고, 올해 말까지 총 45만4,000여마리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종오리 사육마릿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리고기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강현 오리협회 전무는 “오리고기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힘입어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오리 생산량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오리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1,270만마리보다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 양승선 기자 • ssyang@nongmin.com • 2010.11.15

철새 AI 무죄? 4년간 바이러스 검출안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야생 조류와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과학원은 야생조류 1,670마리를 포획해 혈액 등 시료를 채취했고, 배설물 5,116점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AI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원앙 등 32종을 인간과 가금류(닭 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조류)에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교종’으로 지칭했다.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그동안의 농림수산식품부 주장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다. 농식품부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은 2008년 역학조사 보고서를 통해 “고병원성 AI는 해외에서 날아온 철새가 H5N1 바이러스를 새롭게 가져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 선정수 기자 • jsun@kmib.co.kr • 2010.11.16

GSK, 새로운 독감 백신 美 임상 승인 받아 비발리스사의 EB66 기술 이용해 제조돼

프랑스 생명공학사인 비발리스(Vivalis)와 협력사인 GSK는 FDA가 비발리스의 기술로 제조된 새로운 독감 백신의 인간 대상 임상 시험을 허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발리스가 개발한 새로운 독감 백신 제조기술은 오리의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한 EB66 세포를 이용하는 것. FDA는 GSK가 새로운 독감 제조법으로 만든 독감 백신을 이용한 1상 임상 시험을 허용했다.

비발리스의 독감 제조법은 달걀을 사용한 기존방법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며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EB66을 이용해 제조된 독감백신이 2015년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비발리스는 기대했다. 또한 이번 승인으로 사노피와 머크 등 다른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백신 개발도 기대했다.

데일리팜 • 이영아 • yalee1@dreamdrug.com • 2010.11.25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AI 전부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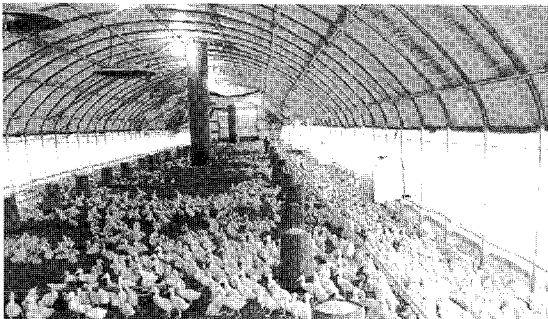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중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AI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검사는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좌읍 하도리 및 한경면 용수리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분변 74점을 채취해 실시됐다.

도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방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관찰 읍·면에서 철새도래지 예찰·소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철새도래지에서 874점의 시료를 채취검사해 2건의 저병원성 AI를 확인해 반경 10km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뉴스스·강재남·hynikos@newsis.co.kr • 2010.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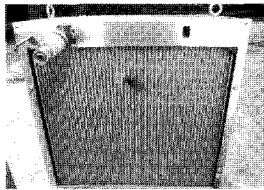
보일러 한대면 올 겨울 난방비 걱정 끝
화제의 제품 : 짱구농장-충청낙농 공동개발, 오리
축사용 보일러



▲개발한 축사난방용 보일러시스템을 농장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

자동차 히터 원리 자동화시스템...일정온도 유지
 농사용 전력 사용...난방비 면세유비 40% 저렴
 지하수 이용 냉방 기능 겸해 축사 환경개선 일조
 올 겨울에는 새끼오리 축사에 보일러 한 대씩 장만하면 난방비 걱정은 물론 새끼오리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군의 짱구농장(대표 정기현)과 기자재 전문업체인 충청낙농이 지난 2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축사 난방용 보일러 시스템이 충북의 오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보일러 시스템은 겨울철 난방은 물론 여름철에서 냉방기로도 활용



▲축사난방용 보일러의 전면.

할 수 있으며 축사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짱구농장에서 개발한 보일러 시스템의 원리는 간단하다. 바로 자동차의 히터와 같은 원리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축사를 순환하고 중간 중간 설치된 환이 따뜻한 바람으로 축사 전체를 난방하는 시스템이다.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축사내 온도에 따라 미리 설정해 놓은 온도에 맞춰 환의 회전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됨에 따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축사내 보일러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용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40%정도 저렴하다는 것이 전기현 대표의 설명이다. 때문에 얼마 더 오를지 모르는 기름값은 물론 계측기까지 달아야 하는 온풍기에 비해 훨씬 경쟁력이 높다.뿐만 아니라 온풍기를 사용할 경우 축사내 산소가 부족하고 환기가 안돼 축사내 환경이 열악해 새끼오리의 스트레스가 크지만 이 시스템은 산소의 산화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만큼 축사환경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또 곳곳에 설치된 환이 동일한 환경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축사 전체가 동일한 온도로 유지되므로 새끼오리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했다면 여름에는 지하수를 순환시켜 냉방까지도 가능해 난방기와 함께 에어컨까지 설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품이다. 이 같은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충북도는 도 자체적으로 오리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선정해 선정해 오리농가들에게 설치해 주고 있다.

축산신문·이희영·hyoung@chuksannews.co.kr • 2010.11.29